

일본 시인과 조선 문인들의 교류록 《갑신접사록》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의 고서들 — 13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조선 후기에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다녀오면 공식적인 외교행사 이외에도 수많은 일본 문인들을 만나 시를 주고받거나 필담을 나눴다. 엔칭도서관에 소장된 《갑신접사록》은 한문 필사본으로 조선과 일본의 문인들이 시로써 교류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책은 조 엄 일행이 갑신년(1764)에 막부가 있던 에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측 접반 문인이었던 겐조오가 조선 문인들을 찾아와 시를 주고받은 기록이다.

조선 후기에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다녀오면 공식적인 외교행사 이외에도 수많은 일본 문인들을 만나 시를 주고받거나 필담을 나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이 집필됐다. 사행일기가 중심이지만, 창화집도 있고, 필담집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에도(江戸)까지 다녀온 통신사는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처음 수입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조 엄(趙曠)인데, 계미년(1763)에 출발했으므로 이 일행을 흔히 계미사행(癸未使行)이라고 한다.

이들 일행 가운데 뛰어난 문인들이 많았는데, 조 엄은 그 가운데 제술관 남 옥과 서기 김인겸·성대중·원중거를 가장 아껴서 4문사(文士)라고 말했다. 조 엄은 일본에 다녀와서 《해사일기(海槎日記)》와 《수창록(酬唱錄)》을 남겼고, 남 옥은 《일관기(日觀記)》와 《일관시초(日觀詩草)》《일관창수(日觀唱酬)》를, 김인겸은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를, 성대중은 《일본록》을, 원중거는 《승사록(乘槎錄)》을 남겼다. 이 기록들은 모두 국내에 남아 있다. 이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행원의 기록인 《계미수사록(癸未隨使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한일 두 나라 문인들이 주고받은 시는 당시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어, 통신사 일행이 다녀갈 때마다 일본에서 창수집이 간행됐다. 계미사행 때 주고받은 시들을 모아 명륜관(明倫館)에서 간행한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가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데, 계갑(癸甲)은 계미·갑신의 약자다.

통신사 일행과 일본 문인들 사이에 문학 교류 활발해

엔칭도서관에 소장된 《갑신접사록》은 2권 1책 27장의 한문 필사본인

데, 겉표지에는 제목이 없다. 속표지 제목은 《보력십사갑신삼월조선인일본인출회시집 접사록(寶曆十四甲申三月朝鮮人日本人出會詩集接槎錄)》이다. 조 엄 일행은 계미년(1763) 8월에 한양을 출발해 갑신년(1764) 2월에 막부가 있던 에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25일 동안 머물며 국서를 전달하고 외교적인 절차를 수행했다. 이때 일본측 접반(接伴) 문인이었던 겐조오(源藏)가 조선 문인들을 찾아와 시를 주고받으며 필담을 나눴다. 이들이 3월에 몇 차례 만났으므로 책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엔칭도서관 도서목록에는 《갑신접사록》이라고 등록됐다.

이 책의 지은이는 권상(卷上) 첫줄에 “동곽원휘비룡저(東郭源暉非龍箸)”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어지는 서문에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소상하게 밝혔다. 그는 2월 24일에 친구들과 함께 통신사 일행이 묵고 있는 본원사(本願寺)로 찾아가 제술관과 세 서기를 만났다.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오면 일본 문인들이 찾아가 시를 주고받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조선 문인들에게는 문학활동이라기보다 노동이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닌 문인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과 관리들이 시를 지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를 주고받았던 김인겸은 일본에서 보고 들은 일들을 《일동장유가》로 지었는데, “날마다 이러하면 / 사람이 못견딜세 / (...) / 노병한 이 내 근력 / 쇠잔할까 싶으도다”라고 탄식했다. 역시 일행이었던 이연진도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연암 박지원이 지어준 전기 <우상전(虞裳傳)에 따르면 그는 에도로 가면서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돌아올 무렵에는 벌써 그의 시집이 간행돼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의 지은이가 통신사 일행의 숙소에 도착하자, 조선 문인들 앞에는 이미 일본 문인들이 접수한 명함(名帖)이 산과 바다같이 쌓여 있었다. 그는 명함에다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제 성은 겐(源)이고, 족(族)은 아마자키(山崎)이며, 이름은 조오(藏), 자는 비룡(非龍), 호는 문연(文淵), 별호는 동곽(東郭)인데, 조현정주인(鈞亭亭主人)이라고도 합니다. (...) 하야시 췌주(林祭酒)의 문인으로, 쇼오헤이(昌平) 국학(國學)의 생원(生員)입니다.”

일본에는 원래 성리학의 전통이 약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태평성대

가 계속되면서 관심이 늘었다. 유학자 하야시라잔(林羅山, 1583~1657)이 1603년에 사숙(私塾)을 차리고 학생들을 모아 《논어집주(論語集註)》를 강론했다. 하야시게(林家)의 사숙은 라잔에서 가호(鶯峰)·보우오카(鳳岡)로 3대가 이어지면서 학문과 교육에 권위를 인정받아 막부 직할의 대학 쇼헤이코(昌平黌)로 승격됐으며, 하야시보우오카(林鳳岡)를 대학두에 임명해 인재를 교육하게 했다. 횡(鬻)은 조선식으로 성균관 또는 국학(國學)이며, 대학두(大學頭)는 제주(祭酒)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겐조오가 임제주의 문인이자 생원으로 자처했던 것이다.

‘천년에 보기 드문 만남’이라고 일본 문인 감탄해

그가 책 제목 아래 자신의 이름을 길게 기록했지만, 호와 자를 빼면 겐조오(源藏) 또는 겐아키라(源暉)다. 일본인들은 대개 선물을 준비해 와서 명함을 내밀며 글을 써 달라고 했는데, 이때 겐조오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신분에 따라 우선 제술관 남 옥에게 개(開)·재(哉)·대(臺)·재(才)·래(萊)자를 운으로 한 칠언율시를 지어 올려 화운시를 받고, 이어서 세 서기에게도 같은 운으로 시를 지어 올려 역시 화운시를 받았다. 이 글자들은 조선과는 경치가 다른 일본을 선계(仙界)로 여기고 웅장한 건물에 놀라던 조선 문인들이 자주 쓰던 운이었다. 그는 조선 문인들과 창화(唱和)를 마치면서 또 시를 지어 올렸는데, 오언율시 <졸부정학사서기각좌하(卒賦呈學士書記各座下)>를 지어 바치자 네 문인이 각기 화운시를 지었다. 그가 같은 제목으로 운을 바꿔 다시 오언율시를 지어 바치자, 조선 문인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오면 일본 문인들이 찾아가 시를 주고받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조선 문인들에게는 문학활동이라기보다 노동이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닌 문인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과 관리들이 시를 지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들도 역시 화운시를 지어줬다. 앉은 자리에서 칠언율시 32수와 오언율시 10수가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의 창화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그때 한 늙은이가 자리에 끼어들기에 겐조오가 먼저 읊(攄)하고 통성명했는데, 그의 이름은 홍선보(洪善輔)고, 호는 묵재(默齋)였다. 겐조오는 “오늘의 만남은 천년에 보기 드문 만남”이라고 하면서 다시 칠언율시를 지어 바쳤다. 앞의 시들은 겐조오가 미리 지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는 갑자기 지은 것이다. 외(隈)·개(開)·대(臺)·재(才)·재(哉)자를 운으로 썼으니 첫번째 시에서 멀리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문장력이 뛰어난 것만은 알 수 있다.

그는 조선 문인들과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송별시를 밤새 지어서 다시 찾아왔다. 역시 같은 운으로 두차례씩 주고받아, 홍선보까지 포함해 다섯 사람과 주고받은 시 18수가 실렸다.

다과와 관을 주제로 필담 주고받아

겐조오는 3월 2일에 하야시 제주(林祭酒)의 서기 신분으로 다시 본원사에 찾아왔다. 당시 막부에서 조선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쇼헤이코에 자문을 구했기에, 이번에는 스승을 따라 집반의 자격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는 네 문사를 다시 만나게 된 반가운 마음을 필담으로 전했다. <일동장유가>의 작가 김인겸에게는 “와카(和歌)를 잘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1수만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인겸이 “내 재주가 못나고 나이도 늙어 우리나라 노래도 모르니, 귀국의 노래를 어찌 알겠느냐?”고 사양하자, 그는 “그렇다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 듯하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김인겸이 평소에 가사를 잘 지었기에, 일본 노래까지 잘 짓는다고 소문난 듯하다.

이들 앞에 다과가 놓이자 겐조오는 과일 하나하나의 이름을 물어보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져다 어머니께 드리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남 옥이 “부드러운 것은 약과인데, 천리 풍파를 건너오느라고 원래 맛이 다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겐조오는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느라고 어머니의 생신도 열흘 뒤로 미뤘는데, 백지 몇 장을 꺼내 축하시를 부탁했다. 겐조오는 이날도 조선 문사들과 18수를 주고받았다. 겐조오 한 사람이 조선 문인들과 주고받은 시가 78수나 되니, 통신사가 한차례 다녀가면 얼마나 많은 시들이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3월 3일에도 문안편지를 보냈고, 3월 8일에는 평복을 입고 찾아가 이별을 아쉬워하며 필담을 나눴다. 9일에도 다시 찾아가 필담을 나눴는데, 이날은 막부에서 통신사 일행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화제에 올랐다. 예전보다 음식이 줄어들었는데, 막부에서 조선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소홀해진 것이다. 겐조오는 조선 문사들이 쓴 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정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접대를 받으며 “(주인이) 반쯤 깎은 머리에 관을 쓰지 않아서, 보기에 매우 못마땅했다”고 일본의 예의문물 수준이 낮은 것을 비판했다. 겐조오는 성대중에게 지난번에 썼던 관이 동파관(東坡冠)인지 묻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기록은 동파관과 연엽관의 그림으로 끝나는데, 필사가 중단된 듯하다. 한일 양국의 문물을 비교할 수 없어 아쉽다. ■



일본 문인 겐조오는 조선 통신사들이 쓴 관에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은 성대중이 겐조오에게 그려 준 동파관 그림.